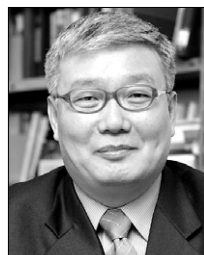


신문을 펼치면 의례히 등장하는 단어들 '고령화시대에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입금 피크제' '패러다임' '이미지 파워' '슬럼프가 오면' '자신을 브랜드화 하자' '마케팅전쟁' 등 온갖 외래어와 혼용하는 한글을 접한다.

한 민족의 힘은 말과 글이 살아야 굳건해진다 고 믿는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말과 글을 아름답고 바르게 다듬고 키워가며 제 일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겨레의 말에는 겨레의 열과 혼이 담겨있다. 그러나 함부로 제멋대로 말하고 씌우며 한글의 기본이 무너져 가는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현실이다.

지난날에 중국을 큰 나라로 섬기려는 사람들이 한문을 높여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말이 주눅이 들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다 일본이 침략해 오자 또 일본에 아부하기 위해 일본어 쓰기를 좋아하고 우리글과 말을 알보며 없애려고 했다. 이른바 조선총독부에서 정책적으로 억지로 이를 조차도 일본식으로 고치고, 일본어를 쓰게 하며 우리의 글과 말을 말살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 작금의 시대에는 세계화 바람으로 영어를 알아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고 하여 너도나도 영어 열풍이다. 이미 사회는 외국어와 외래어 그것도 서구식 신조어까지 범람하는 홍수 속에 허우적 거리고 있다.

물론 세계화 시대에 국경의 경계가 무너져 외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상임이사

한글날, 다시 태어난 세종대왕

국과의 교류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접 외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전할 수 있다면 그만큼 편리한 것도 없을 것이다.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마구 외국어를 자랑삼아 쓴다면 바람직 한 모습이 아니다. 인터넷과 방송 그리고 신문 등 언론매체부터도 무분별한 외래어의 남용은 심각할 지경이다.

우리 글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랜 동안 이른바 한자어를 가지고 생활해 왔기에 우리 말의 낱말

중에 한자어가 80퍼센트가 넘어 순 우리말은 겨우 20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한 한자말을 순 우리말로 바꿔 말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영어나 일본어 등도 처음에는 외국어로 쓰다가 점차 외래어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글은 더욱 큰 생존력으로 우리의 정신을 바로잡게 해 주고 있다. 일찍이 박은 식 선생은 "일본말을 가르치면 일본 사람이 되고, 중국말을 가르치면 중국 사람이 되므로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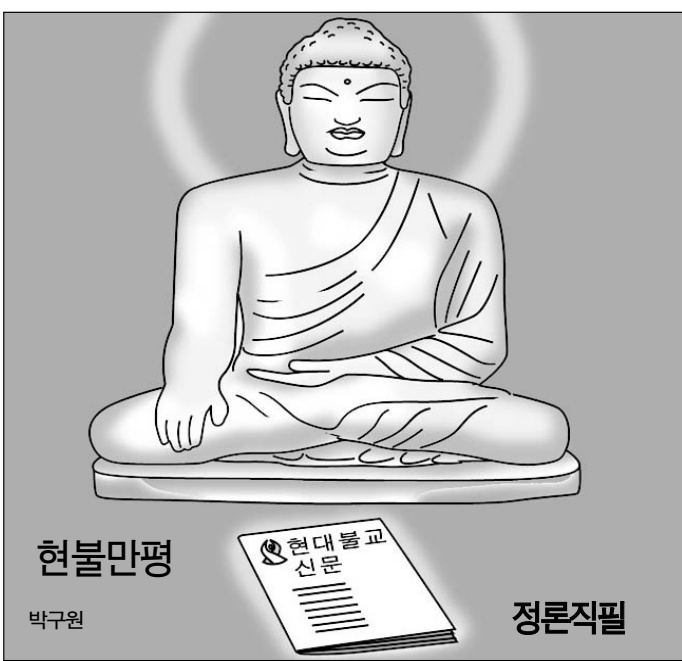
는 우리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국의 언어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지난 여름 개장한 광화문광장에는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동상이 자리 잡았다. 퇴근길에 광화문광장을 걸어보았다. 정겨웠던 오래된 은행나무들은 사라져버렸고 황량한 그 자리에는 기괴한 모습의 햇빛 가리개들 만이 마치 무슨 조형물의 동상이었다.

세종대왕은 과학적인 한글을 만든 우리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다. 서울의 일급인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동상을 세우기위한 건 사소한 발상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광장이 있는 위치가 세종로이니 이순신장군이 아니라 세종대왕동상이 있어야 한다는 일부 시민의 요청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이순신장군 동상도 그대로 두게 되면서 광화문광장은 동상이 두 개가 있는 광장으로 변모했다.

세종의 한글창제의 깊은 뜻이 제행(諸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면 날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걸어오는 셈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처럼 넘치지 않는 모습으로 녹아들어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갈등과 혼돈의 시대 세종대왕의 정신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 토티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1)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0월의 테마-결실

다람살라는 인도의 북부에 위치한 산골 마을이다. 이곳은 달라이 라마 존자가 인도로 망명해서 티베트 임시정부를 꾸리고 사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을 처음 가게 된 것은 18년 전 어느 여성 불자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인도 성지순례가 목적이었지만, 현재 인도불교의 모습도 보고 싶었다. 그곳에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티베트 본토에서 달라이 라마 존자를 따라온 수많은 노스님들이 있었다. 이제는 대부분 입적했지만, 스님들의 존재만으로도 산골마을은 향기가 넘쳤다.

추운 지역에서 살던 노스님들은 갑자기 인도의 더운 환경으로 바뀐 탓에 풍토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님들은 아침에는 빵 한 개, 점심에는 카레라이스 한 그릇, 저녁에는 칼국수나 밀크 티 한잔을 하면서도 항상 여유롭게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 스님들의 소유물은 그야말로 추위를 피하는 두꺼운 쇼울 하나뿐이었다.

노스님들은 대부분 병이 없이 갑자

한국불교는 얼마나 결실을 얻었을까?

기 열반에 드셨는데, 여름까지도 멀쩡하다가도 가을이면 이미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에서 그런 노스님들의 모습을 밟고는 불교의 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불교는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3계(三界)를 초월해서 해탈하는 종교이다. 한국불교는 지금 어디까지 결실(結實)을 얻고 살고 있을까?

나라를 잃고 이국땅에 임시방명 정부를 두고 의존해서 떠돌고 있는 수많은 티베트인들은 종교의 자유와 바른 스승을 찾아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를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스승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산다. 달라이 라마 존자는 법을 구하려 다람살라를 찾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며, 음식값이며 게스트하우스의 숙박비를 아주 저렴하게 책정하라고 한 지시대로 그들은 어려운 살림에서도 스승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산다. 그래서 다람살라의 음식과 방값은 질이 좋으면서도 값이 싼 편이다.

다람살라의 티베트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절로 가서 대웅전이나 탑 주변을 도는 소위 '꼬라' 도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한다. 재가 불자들이 집마다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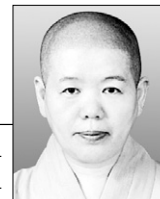
단을 갖추고 아침저녁으로 예불과 기도를 필수로 하고 살아간다.

한 집안의 맏아들이나 똑똑한 아들이 5-7세에 출가해서, 수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경전공부를 수년간하고 스승의 지시로 동굴 수행을 1-3년 간 해도 겨우 20세밖에 안 된다. 젊은 스님들은 대부분 순수하고 낙천적이라 항상 얼굴에 밝은 빛이 넘쳤다.

한편으로 재가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절망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그들은 '티베트의 자유'를 외치면서 데모와 시위를 주도하곤 했다. 이와는 별도로 티베트인들의 삶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온 서구인들은 쉽게 동화돼 갔다.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행복한 티베트인들의 삶을 통해, 행복의 조건은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음을 피부로 느낀 것이었다.

그것이 티베트 불교의 법력(法力)이 자결실(結實)이 아닌가 싶다.



은월 스님

동국대 강사

전국비구니회 교무부장

社說

창간 15주년의 다짐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본지가 창간되며 내 놓은 사시다. 불교계 언론의 질적 변화를 이끌었고 양적 변화를 주도한 인터넷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린 본지가 어언 창간 15주년을 맞았다.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하고 싶었던 일보다 하지 못한 일이 훨씬 많은 것 같다. 그것은 본지의 정신과 의욕이 너무 앞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이 항상 미흡했던 탓이다. 어디 본지뿐인가? 언론에 대한 불자들의 요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작 시스템과 영업적인 결핍들이 불교계 언론의 질적 양적 수준을 제자리걸음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언론의 부단한 노력이 없다는 뼈아픈 자성이 있다. 상부적으로 '급변'이라는 말을 남발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항상 인과 속에 이루어진다. 그 인과의 흐름을 날카롭게 살피고 예리하게 대처하는 지혜의 부족이 불교 언론의 발전을 막는 것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 일부 장기 기획물에 대한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은 신문 만드는 재미를 몰려 준다. 새로운 연재들에 대한 높은 관심, 더러 지면에 드러나는 실수에 대한 신랄한 질타,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

본지는 결코 하나의 언론사가 아니라 사회와 불자 그리고 국민을 연계하는 가교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발전지향적인 생각이 불자와 국민의 문화적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알찬 신문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신문을 만들기 위해 한 순간도 '생각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진흥원과 불교방송의 '몸통'

대한불교진흥원과 불교방송이사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들어 불교방송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양측은 기자회견과 등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각각의 입장을 보면 서로 타협할 여지조차 없어 보인다. 대립의 심화가 위험수위를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사장 선임 문제가 갈등의 분출구이긴 하지만 진흥원과 불교방송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측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 하면 그만큼 힘만 빠지고 결실은커녕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개인 대 개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충돌이 있을 때는 결별할 때 결별하더라도 대화는 해야 하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진흥원과 불교방송도 대화를 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허심탄회하게.

그러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 어렵다면, 제3의 인사들과 양측의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법을 찾는 일도 좋을 것이다. 지금 불교방송이 토론회를 제안 한 것이 진정한 객관적 검토를 위한 단계 거처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진흥원과 불교방송은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 세카루다와 우바카루다의 설화를 상기하고 화합할 때다. 그것이 진흥원과 불교방송을 설립한 대한 장경호 거사와 장상문 거사의 대를 잇는 불심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ONENESS KOREA '하나됨으로 사는 삶' LIVING IN ONENESS 10월 30일, 31일 11월 1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전 세계적인 원네스 강연자 아난다기리지의 3일 컨퍼런스를 통해 당신의 삶 속에 부, 건강, 사랑과 행복이 더욱 넘쳐흐르는 소중한 기회를 잡으세요! 115개의 국가, 1억5천만명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는 원네스현상을 지금 경험하세요!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지는 특별 원네스과정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 삶에 대한 법적 터득하기 • 부모, 배우자, 자식, 동료들의 관계회복 및 치유 •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 자신을 포함한 모든것과 하나됨 이루기 • 일 시 : 2009년 10월 30(금), 31(토), 11월 1(일) • 장 소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1층 대강당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 강 연 자 : 아난다기리지 (인도 원네스 유니버시티 강연자) • 금 액 : 95만원 (입금 선착순 자리배정) • 홈페이지 : www.onenesskorea.com • 예약문의 : tel- 070-8244-8020 mail-onenesskorea@gmail.com 카페-http://cafe.naver.com/onenesskr 주 최 : Home 및 아이홈 협력업체 ONENESS UNIVERSITY